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구원, 세션 19, 보존 및 지속, 파트 3, 체계적 공식화, 확신

© 2024 로버트 피터슨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보존과 인내, 파트 3, 체계적 공식화,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원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보존,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양한 측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공부하고 있으며, 그것은 성경이 일관성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보완적인 진리여야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즉시 일관성이 있는지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사랑, 그리고 이제는 거룩함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자들은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구원받으려면 거룩함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구원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믿음은 효과가 있고, 선행을 낳습니다. 인용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갈라디아서 5, 6절,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 6. 우리는 이 진리를 네 구절에서 볼 것입니다. 첫째, 바울의 가장 유명한 믿음과 일에 대한 텍스트인 에베소서 2:8-10에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작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가 행하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8-10).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의롭게 됨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오는 것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은 자랑할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27-28을 인용하면,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배제된다. 어떤 종류의 법에 의해 배제되는가? 행위에 의한 법에 의해? 아니, 오히려 믿음의 원리에 의해 배제된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별개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결론내린다, 로마서 3:27-28.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구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지만 참된 구원은 선행으로 귀결됩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작품입니다. 이 선행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미리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재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지만, 에베소서 10장의 맥락에서 창조된 말씀의 의미는 정확히 재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모든 주요 종말론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미 있고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으로 거듭나고 재창조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이며, 고린도후서 5:17, 그것은

새 땅에서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마치 내가 거의 이것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일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네, 글썄요, 당신은 그것을 하기 위해 다시 만들어졌어요. 참된 신자들은 거룩함 속에서 끈기 있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상 구원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분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그런 일들을 하도록 계획된 그분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 바울은 칭의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선행으로 이어진다고 다시 주장합니다.

거듭남과 칭의는 인간의 업적을 포함하지 않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3:4-7,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의 자비에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도서, 잠깐만요, 디도서 3:4~7에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절, 사랑, 자비,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즉, 거듭나고,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바울은 구원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갈라디아서 2:16에서 그는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세 번이나 말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매우 명확해요.

동시에 그는 또한 자유로운 의화는 경건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위의 구절 바로 다음에 우리는 이 말은 믿을 만하다고 읽습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행에 전념하도록 조심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합니다. 8절, Yarbrough는 그의 책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Pilgrim New Testament Commentary*, 552 쪽에서 바울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용문, 디도서 3:8에 있는 이것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레타 섬의 신자들이 디도의 목사들을 매우 중시하도록 촉구하는 선행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anthropois*,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표현. 교회가 멸시할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3절)은 바울이 사회에서 뛰어난 행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주라고 촉구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디도서 3장 1절과 2절.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 있는 본문으로, 세 번째 구절은 신자들이 거룩함 안에서 끈기 있게 버틸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독자들에게 박해를 신의 징계로 견뎌내라고 명령한 구절에 이어, 저자는 히브리서 12:14에서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14는 독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평화를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저자는 그리스에서 평화를 첫 번째 강조 위치에 둡니다. 맥락상 이는 신앙 공동체 내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Pursue*는 강력한 동사이며 조화와 거룩함과 관련하여 독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달합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사실, 추구하다라는 단어는 반복되지 않지만 두 동사 모두에서 명확하게 이해된다. 독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은 지복의 비전, 신을 보는 것, 보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채우는 신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FF 브루스는 정확합니다. 인용하자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거룩함은, 그 단어 자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한 자이며, 하나님을 볼 사람은 그들뿐입니다. 마태복음 5:8.

여기서 10절에서처럼, 이어지는 구절에서 경고가 언급되는 것들의 반대인 삶의 실제적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인용문 닫기. FF 브루스의 히브리서 주석. 히브리서에 대한 서신, 신약에 대한 신국제주석.

신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함 안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은 그의 거룩함이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죄의 고백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구절은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룩함의 인내 연구에 균형을 더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구원을 위한 그러한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1:5, 6.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와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둠 속을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5, 6. 요한일서 2:3~5.

이것이 우리가 그를 안다는 것을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를 알았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요한일서 2:3~5. 요한일서 2:29. 그가 의롭다는 것을 안다면 이것도 알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그에게서 났느니라. 요한일서 2:29. 요한일서 3:6~8, 그리고 10절.

그분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옳은 일을 하는 자는 그가 의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10절.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특히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6~8, 그리고 10.

따라서 요한 1서는 신자들이 공언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데 큰 중점을 둡니다. 인용된 구절에서 이것은 죄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고 거룩함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실, 위의 구절을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요한일서 1:5에서 2:2에 근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절 전체의 기본은 5절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기본은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이며, 그 사실로부터 어떤 함의가 따릅니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2장 1절까지 인용합니다.

그들은 통일성 있고 , 존이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한 가지를 다른 것 옆에 두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체계적인 신학 책이 아니지만 , 어떤 곳에서는 체계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저자, 성령이 뒤에 있는 성경의 저자는 독자들이 기독교 신학이나 윤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윤곽을 설명할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6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와 사귀어 있지만 어둠 속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귀어 있고 예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도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호자가 있느니라. 이 구절들은 나를 멀어지게 한다. 이 구절들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죄를 부인하는 한 가지 진술과 죄를 인정하거나 거룩한 삶을 권고하는 두 가지 진술을 번갈아가며 다룬다.

1:6 죄를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진술.

1:7 거룩한 삶을 칭찬하는 진술.

1:8 이론적으로 죄를 부인하는 진술.

1:9 죄를 인정하는 진술.

1:10은 실질적으로 죄를 부인하는 진술입니다.

2:1은 거룩한 삶을 권하고 죄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삶에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기 11:44; 19:2; 베드로전서 1:16을 비교하세요.

거룩함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자가 되는 것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도 죄를 부인할 수 있으며, 둘 다 재앙입니다. 위의 목록에서 생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에게 유익합니다. 즉, 예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7절). 다시 말해, 저는 이런 것들을 생략했지만, 그것들은 구절에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용서라는 두 가지의 충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도 죄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앞뒤로 오가는 경건한 삶을 칭찬하시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십니다(9절). 믿는 이들이 넘어지고 넘어질 때조차도,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변호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2:1). 그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화해하셨습니다(2절). 따라서 요한일서 1:6-2:1은 서신에 나오는 완벽주의적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자격을 부여합니다. 거룩함 안에서 인내하는 것의 핵심 측면에는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도 죄를 인정하고, 죄를 그리스도인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의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보존을 보존하십니다. 신자들은 믿음, 사랑, 거룩함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 사랑, 거룩함 안에서의 인내는 확신과 배교를 포함한 다른 교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차례로 간단히 다룰 것입니다. 확신은 최후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주요 수단을 통해 그의 백성을 은혜롭게 확신시킵니다.

그의 말씀에 있는 구원의 약속이 가장 중요 하지만 ,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와 그의 백성의 삶에서의 영적 성장. 저는 저의 책인 *구원의 확신, 우리의 투쟁을 위한 성경적 희망* , Zondervan 2019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을 통한 확신.

영적 성장을 통한 확신. 말씀을 통한 확신. 복음의 약속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사람들이 아들을 신뢰하여 영생을 얻 도록 할 때 ,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믿을 만한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확신의 근본적인 근원입니다. 요한 1서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확신을 근거로 합니다.

인용문, 그리고 이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11, 12. 요한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구별합니다.

그의 구별은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아름다움, 두뇌, 근육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구별은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자이신지 여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보존 구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26에서 발췌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 그리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로마서 8:1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건대, 바울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사물도 장래 사물도 권능도 높이도 깊이도 다른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히브리서 7:24-25, 예수님은 영원히 계속되시기 때문에 영구히 제사장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24-25, 확신은 주로 말씀을 통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신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주된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의 영으로 최종 구원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는 이 진리에 대한 주된 증거이지만 요한 1서도 증거합니다. 요한 1서 4:13,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함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3, 요한일서 3:24, 그리고 이 길과 그가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길은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6-10,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오신 분입니다. 그의 세례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증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증거하는 자가 셋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 물, 피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6-10, 처음 두 본문은 성령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역할을 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텍스트에는 그리스도의 세 증인 가운데 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삶의 시작과 끝에 표지판을 놓습니다. 물, 예수의 세례, 그리고 피, 그의 십자가 처형.

영은 요한복음 17:17과 아들 요한복음 14:6과 같은 역사적 표식에 대해 증거합니다. 영은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6,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할 때, 그는, 인용문, 이 증거를 자신 안에 갖게 됩니다. 달기, 영의 증거가 그의 또는 그녀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10, 로마서는 성령의 확신에 대한 내적 증거에 관한 가장 뛰어난 두 구절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후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5:1-4.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소망이 안전한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구원에 대한 이 소망, 영광에 대한 이 소망.

그것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서 5:5).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적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주어진 확신을 보완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강화시켜 줍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에 대한 고전 본문은 로마서 8:16입니다. 이 문맥은 신자가 신자를 입양하는 것을 다룹니다. 신의 자녀는 식별 가능합니다. 인용문에서 그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신의 영에 인도되는 모든 사람은 신의 아들입니다(로마서 8:14).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면 자녀를 두려움에서 구원합니다.

이는, 인용문, 입양의 영이 그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아바는 아기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여기서의 아버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부르짖다라는 용어는 ESV, NASB, CSB, Christian Standard Bible에서 문장에 느낌표를 찍는 것처럼 감정적 강렬함을 의미하고 전달합니다. 부르짖다라는 용어, 영은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영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내적으로 확신시켜 줍니다. 인용문에서 영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16절).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외적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의 인간적 영과 함께 증거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내적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인용하자면,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고 그의 죽음과 고난에 연합된 자들은 또한 영광에 있어서 그와 연합될 것입니다(로마서 8:17). 하나님은 머리와 마음 둘 다 섬기십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신앙에서 최고의 자리에 두려는 열의로 마음을 최소화합니다. 무가 로마서 8:16에서 동사를 언급하면서 그의 위대한 로마서 주석 502쪽에서 동사를 부르짖는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우리의 인식이 합리적인 고려나 외적인 증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강렬하게 경험한 진실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감정에만 근거하는 데 오류가 있다면,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과 주장에만 근거하는 데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입양의 영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21살 때 성경을 읽도록 인도하셨고, 저는 그것을 탐독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었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가 말하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하자면 복음에 취해 몇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알 만큼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맏소사,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격려적이었습니다. 나는 특히 바울의 서신을 읽고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놀라운 확신을 느꼈지만, 또한 성경과 함께 나를 위해 하루를 지탱하고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이상한 내적 확신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 내면의 영을 통한 확신, 영적 성장을 통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보존의 약속, 그의 말씀 속의 구원과 보존, 그들의 마음 속의 그의 영의 증거, 그들의 삶 속의 그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확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세 구절의 도움을 받아 이 마지막 요점을 조사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복음 8:11-15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구별합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 과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썩이 돌아난 바위에 떨어졌지만 습기가 없어 말라 버렸습니다.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숨 막혔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세 가지 유형의 토양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오래 지속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유형의 토양만이 예수께서 묘사하신 대로 참된 신자들을 나타냅니다. 인용문, 하지만 좋은 땅의 씨앗은 정직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고 견디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15. 믿음이 자라는 예수의 추종자들의 확신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커질 것입니다. 둘째, 확신을 영적 성장과 연결하는 두 번째 구절은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는 도전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권능과 말씀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베드로후서 1:3, 4.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인용하라고 권고합니다. 믿음에 선함을, 선함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함을, 경건함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7절. 베드로는 독자들이 이런 자질에서 자라면 유용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8절, 더욱이,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 1:9. 우리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1:10, 11. 베드로 안에서, 바울 안에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부르심과 선택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선거보다 앞세우는데, 그것이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방식을 추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통해 그들의 선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4과 5를 비교하세요. 하비와 타우너는 주석에서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포착합니다. 인용문에서 그는 그러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자리의 현실을 확인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절, 해로운 영적 역전을 피하고, 10절, 그리고 영원한 삶의 영광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풍부하게 합니다. 11절, 로버트 하비와 필립 타우너, 베드로후서와 유다서, *intervarsity*, 그리고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그분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확신을 강화합니다.

셋째, 요한 1서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순종의 성장과 연결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요한 1서 2:3~6을 인용하면,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면 그를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았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걸으신 대로 걸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3~6,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반대로, 3절에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나쁜 징조입니다.

4절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이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로 인해 확신을 강화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합니다. 5절에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 6에서 영적 성장을 통한 확신에 대한 우리의 강조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적이며, 결국 구원받기 위해 믿음, 사랑, 거룩함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자녀 안에서 그리고 자녀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성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적 인물 각각에게 이것을 봅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룹니다. 빌립보서 2:12, 13. 왜냐하면 문맥상 하나님, 즉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어 그의 선한 목적을 위해 원하고 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을 경건하게 행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며, 그의 기쁨에 따라 원하고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좋은 생각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일깨워 주실 때입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5.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16. 25절과 비교하라. 그러나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활동적이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팔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무스는 확신이 부분적으로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추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약합니다. 인용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는 거룩한 삶의 필수성을 그 삶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주장합니다. 로마서 4:9에 대한 무 주석. 그것은 아름답게 진술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교실에서 이런 문제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개혁되지 않은 배경을 가진 두 학생이 있었는데, 찰스 호지스의 체계 신학 책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들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거듭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진리에 개혁된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펀지.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다른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쩌면 일부는 제 정신이 둔해서일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와, 흥미롭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글썄요, 더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여러 번 썼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한 구절은 세 가지 확신 수단을 결합합니다. 새로 개혁된 제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 수단을 하나의 텍스트에 모두 결합하여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나란히 배치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선하십니다. 그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그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는 세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주로 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확신의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면의 영을 적절하게 느끼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삶은 격려가 아니라 낙담입니다. 항상 아래에는 영원한 팔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께서 우리가 영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은혜와 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할 때, 그분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 5:1에서 10까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로마서 5:1에서 5까지, 그리고 10절에서 세 가지 확신의 수단을 결합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근거하여 독자들에게 그들의 칭의와 화해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로마서 5:1).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화해된 후에,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10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최종적인 구원을 확증하여, 말씀의 약속을 통해 그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으니, 화해된 후에,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미래 영광에 대한 소망을 확증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로마서 5:5).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서 5:5).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사실, 바울이 말씀에 근거하여 두 가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 단어이지만, 여기서 단어는 우리에게 성령을 가리키고, 여기서 단어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로마서 5:6~10에서 칭의와 화해의 논증을 사용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다면, 그러므로, 9절에서, 우리는 이제 그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는 같은 논증을 반복합니다.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더 어려운 것에서 더 쉬운 것으로의 유대인의 주장입니다. 하느님은 더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정죄받은 죄인을 그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 9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얼마나 더 구원을 받게 됩니까? 맏소사. 말이 됩니다.

그는 더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더 쉬운 일을 할 것이고, 10절에서 정당화의 그림에서 화해로 옮겨가는 동일한 논증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하셨으므로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 훨씬 더, 이것은 유대인 유형의 논증에 대한 언어적 지표입니다. 훨씬 더, 이제 우리가 화해되었으니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피는 9절에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의 생명은 10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며, 우리는 정당화를 속죄, 십자가, 화해 또는 부활에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둘 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칭의와 부활, 화해의 기초이지만 바울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각각은 전체의 일부입니다. 피는 피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피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면.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화해했으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5. 5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한 확신에 대한 주장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줍니다.

그 안의 영은 속삭이듯,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확신시킨다. 그것은 결코 말씀과 별개는 아니지만, 말씀과 동일하지는 않다. 말씀은 여기 밖에 있고, 이 증인은 여기 안에 있으며, 이 증인은 그 증인과 동의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확립하시고, 그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확신을 주시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가지 확신의 방식이 모두 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도 확신을 강화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첫 번째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오, 제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2절에 나오는 천국의 약속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고, 5절에 있고, 그 뒤를 따르는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구절의 시작과 끝에 있습니다

말씀은 삶을 바꾸었고, 성령은 내 안에, 말씀은 다시 3~4절에서 변화된 삶으로부터의 논증을 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입증된 품성을 낳고, 입증된 품성은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자랑합니다. 3, 4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사슬을 주고, 고난은 고난, 박해, 고난,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르게 반응하면 인내와 안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꾸준히 있다면, 당신의 성격은 변화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낳고, 입증된 성격을 낳고, 그것은 희망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심어 주십니다.

그들이 이것을 충분히 자주 한다면, 그것은 삶의 패턴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격을 변화시켜 그들이 꾸준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우리는 줄 사이를 읽어야 합니다. 그는 그 성격 변화가 어떻게 희망을 낳는지 말하지 않지만, 줄 사이를 읽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설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관찰하고, 심지어 그들을 경건함으로 바꾸기 위해, 미래에 그가 일하신다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합니다. 나 자신을 인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확신시키는 방법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배도에 대한 어려운 성경적 가르침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보존과 인내, 3부, 체계적 공식화, 확신입니다.